

경혜 내내 물건을 치웠어요. 계속계속 이걸 버리고 저걸 버리고, 새것의 포장
을 뜯고 그 포장을 다시 버리고 사용했던 것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구분
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물건들은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수분크림, 수면
양말, 호호바오일, 쓰다 만 노트, 일회용 물티슈, 집계편, 유리세정제,가
글, 끝까지 풀지 못한 문제집, 캡슐형 세제, 마스크, 마스크팩, 졸업앨범,
생리대...! 나를 이루는게 이것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청소업자
들은 내 물건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경혜는 청소부가 되어 그들의 대화를 상상한다. 경혜는 청소부가 되어서 그가 언급하는 모든 물건을 던진다.

청소부 흠, 이 어린 여자애는 팩 하다가 질식사하지 않은게 다행일 정도로 마스크팩이 많네.

다른 청소부 에이 이정도는 요즘 젊은 여자면 다 가지고 있던데요? 저번집 갔을때 화장대 못봤어요? 신발이 다 까져있네. 걸음이 험했나봐. 우리 딸도 걸음이 빨라서 늘 뛰어다니느라 밑창이 다 닳아있어요.

청소부 하루면 끝나는 수능특강, 마더텅 국어기출, 한달만에 끝내는 러시아어, 삼주로 끝내는 아이엘츠 단어장, 클래식 작곡 공부법. 일주일만에 합격하는 미용자격증문제집, 삼일동안 당신의 관상 알기, 이주만에 끝내는 인체드로잉 클래스... 뭘 이렇게 자꾸 끝낸대.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진짜로 뭘 끝낸게 있기는 하대? 다 풀지도 않은 문제집이구만.

다른 청소부 어, 이거 수영복 완전 새거예요. 사두고 한번도 안입었나봐요. 제가 입고 가야겠어요.

다른 청소부는 수영복을 입는다. 청소부가 다른 청소부를 말리지만 다른 청소부는 청소부를 먹어버리고는 수영복을 입은채로 집을 나선다.

청년이 수영복을 입은 다른청소부 경혜에게 인사한다.

청년 경혜씨~!

수영복은 입은 다른청소부 경혜는 말없이 환하게 청년을 알아본다.

경혜와 청년은 마임으로 그들의 첫만남과 헤어짐을 그린다.

잡화점을 운영하던 경혜. 경혜의 잡화점 현관문을 청년이 떼어낸다. 청년은 경혜에게 인생최고의 섹스와 인생의 아름다움, 자유의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밤이되어 청년은 기다리고, 경혜는 가지 않는다.

청년

그때 왜 저와 가지 않았어요?

경혜

아아. 가게 문을 닫고 설악산바위로 가려는데 현지이모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자꾸 빨간 양말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빨간 양말은 없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버건디 양말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건디 양말을 췌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빨간 양말이든 버건디 양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지? 바뀐건 내 마음뿐이야. 나는 여기서 인생을 모두 바꾸는 일상의 혁명을 시작할거야! 그리고 나는 변했어요. 어제와 다른 존재의 안경혜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요가클래스를 시작해서 요가 매트와 마사지볼을 샀구요, 교양있어지고 싶어서 클래식도 들었어요. 잡화점도 정리했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그런식으로 계속계속 해나갔는데 사실 나는 무시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신을 따라가지 않아서 지금 이렇다는 걸. 난 그냥 내 존재를 채우는 잡동사니들을 늘리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 모든 잡동사니를 버려야 가능하다는 걸.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삶에서 아주아주 중요한 무언가는 그것들을 버려야 움직인다는걸 알아요.

무서웠어요. 나라고 믿어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뼈와 살과 장기가 되어 기능하는 이 물건들이 없어져야 변화한다는걸 믿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